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강도 노동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 속
야간노동자의 직업병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여객선 객실, 순식간에 나타나 어지럽혀진 객실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60개의 객실을 정리해야 한다.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의 주인공 마리안은 청소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든 여객선 객실 청소 일을 하는 르포 작가로 나온다. 승객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강도 노동을 하는 야간노동자, 그들이 처한 노동 환경과 직업병을 들여다보자.

글 공주영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 공식포스터

#01 전기충격에 마비되는 것 같은 야간 청소 일

영화 속에서 주인공 마리안은 프랑스의 고용 불안과 빈곤을 취재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취업을 시도한다. 하지만 처음 취업에 성공한 청소 일에서 그녀는 제시간에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3시간 만에 쫓겨난다. 23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로 위장한 마리안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힘들다고 꺼리는 여객선 객실 청소부 일뿐이다. 객실 하나를 정리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 이렇게 강도 높은 일을 하고 난 뒤, 마리안은 “팔이 덜덜 떨려서 집에 오면 마치 전기충격에 몸이 마비되었다가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강도 노동에 대한 대가는 고작 시급 8유로이다. 그래도 이 돈을 벌기 위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 등이 있다. 마리안은 이 경험을 책으로 내서 야간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을 세상에 알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야간에 일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많다. 서비스·경비 분야에서도 야간노동자가 있고, 제조·생산 분야에서도 2~3교대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빠른 배송이 확산되면서 유통과 배송에 관련된 야간 전담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다.

#02 잠 못 자는 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

밤과 낮이 뒤바뀐 야간근무는 피로 누적과 회복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오전 근무에 비해 30.4%*나 증가한다. 또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 심박수를 과도하게 높이고 혈압도 올라가 뇌혈관 및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휴식을 취해도 혈압 하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다.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2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제3권>, 2023.01.16., 694쪽

04:49 / 25:09

||

■

▲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 스틸컷

생체리듬이 불균형해지면서 수면장애도 나타난다. 수면장애를 겪는 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회생활이나 가족 간의 교류가 힘들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은 면역체계가 대사, 호르몬 등의 기능을 떨어뜨려 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8년 미국암연구학회(AACR)가 발행하는 학술지 ‘암 역학, 생물표지, 예방(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and Prevention)’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야간근무를 하는 여성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암 발병 위험이 19% 증가한다는 발표도 있다. 이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멜라토닌의 수치가 인공조명 아래에서 깨어있을 때 낮아지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은 2군 발암 요인으로 꼽힐 만큼 유해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야간노동을 유해인자로 정하고 있으며, 야간노동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니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8만 3,883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이 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노동자는 233,022명으로 19.7%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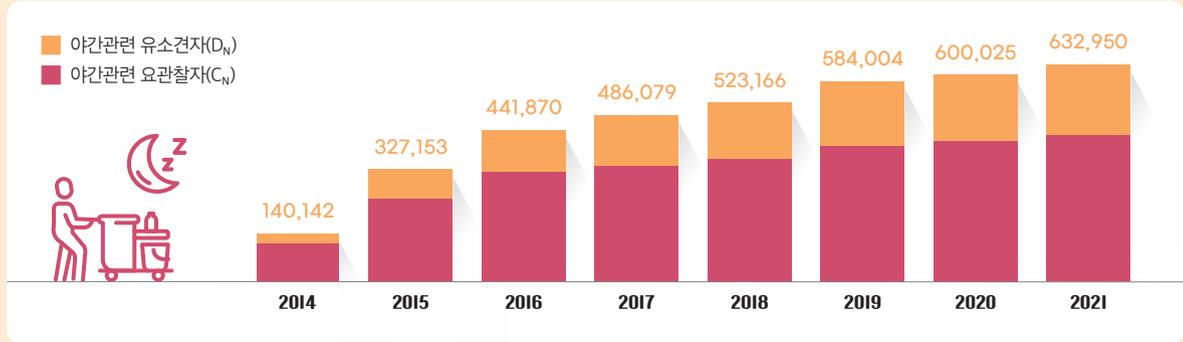
#03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두 세계 사이에서>의 배경인 프랑스에서는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하는 등 야간근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에서도 연속 야간근무를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 대신 야간에 일을 하면 주간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있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야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로 속에서도 임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야간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만난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르면 야간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영구적인 야간작업은 없애고, 연속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야간작업 직전 수면, 휴식이나 낮잠 등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길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유연성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지지가 따라야 야간노동자가 겪는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야간작업 관련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추이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각 연도